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개판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개판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개판

완성된 이름

개판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개판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상태,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개판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상태,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3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개판'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상태,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개판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개판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개판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개판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개판



개판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옛 표기와 변화

‘개판’은 20세기부터 ‘개판’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개판

전체 용례 3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개판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개판

 출처 1953 경향신문 6월 1일 2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돈이 아무리 좋다기로서니 이쯤 되고 보면 개판인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5 동아일보 6월 17일 2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解放 以來, 적지 않은 말이 新造 流行했으며 遂行하고 있거니와 그들 中の 하나에 『개판』이라는 말이 있다.

 현대어 풀이

해방 이래, 적지 않은 말이 새로 만들어져 유행했으며 수행하고 있거니와 그들 중의 하나에 『개판』이라는 말이 있다.

66 문헌 용례

아고 보니 개판이었다 나로서는 격기 힘든 版局이 展開되어 갔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개판에 관한 주석

‘개판’의 어원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널리 알려진 것은 ‘개판 오 분 전’과 연관되어 설명하는 것이다. 한국 전쟁 때 군부대 등에서 피난민에게 배식하기 위하여 밥을 짓는데 밥솥의 나무판 뚜껑을 열기 오 분 전에 ‘개판 오 분 전’이라고 외쳤다. 그러면 배식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데 혼란스러워 이로부터 ‘개판 오 분 전’이라는 말이 유래했고, 개판은 ‘開板’ 즉 나무판을 연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의 문제점은 ‘開板’이라는 말이 쓰인 다른 예가 없다는 점이다. ‘開板’의 ‘開’는 단음인데 ‘개판’의 ‘개’는 장음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 중요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있다. 이 뜻의 ‘개판’이 북한에서 간행된 《조선말사전》(1962)에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개판’이라는 말이 남북의 언어가 단절되기 전부터 쓰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씨름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때 그 판을 다시 하는 ‘改판’에서 왔다는 견해도 있다. 씨름에서 승부가 나지 않으면 이를 둘러싼 다툼으로 시끄러워지게 되어 이러한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황을 ‘개판’이라고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선거 입후보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을 두고 신문 기사에서 ‘개판 씨름 격박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1948 동아일보 4월 10일)을 보면 이런 쓰임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1955년 신문 기사에서 ‘개판’이 해방 이후에 유행한 말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보면 1945년 이후 혼란하던 시절에 유행하기 시작한 말로 보인다. 이 말은 《표준국어사전》(신기철 신용철 편, 1958)에 실린 것이 확인된다. 1945년 이후 유행한 것이 맞다면 비교적 빠른 시기에 널리 퍼지면서 사전에도 일찍 오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옛날에 출판할 때 처음 찍어내는 ‘개판(開版)’이나 판을 다시 짜는 ‘개판(改版)’ 전에는 시골벽적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유래했다는 견해도 있다. ‘개’와 연관 지어 개들이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데서 왔다는 설도 있다.

개판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조항범 2022 《우리말 어원 사전-말과 글의 달인이 되는 법》 태학사
- 박재양 2016 〈박재양의 우리말 뿌리를 찾아서〉 개판 5분 전, 혼란 상태..‘개(犬)판·開板·改版’ 세가지 說 〈문화일보〉 2016년 2월 1일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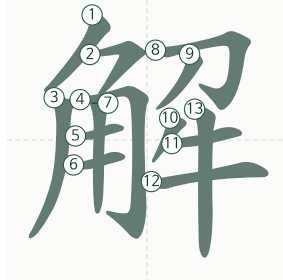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개판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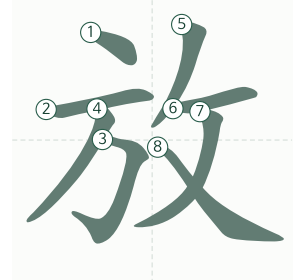
뜻·음 풀 해
총 13획 · 부수 角



hanja.wordrow.kr/한자/解/

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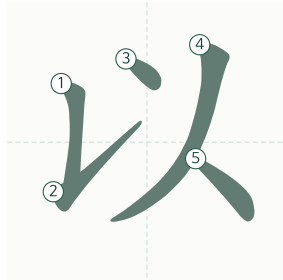
뜻·음 놓을 방
총 8획 · 부수 攴



hanja.wordrow.kr/한자/放/

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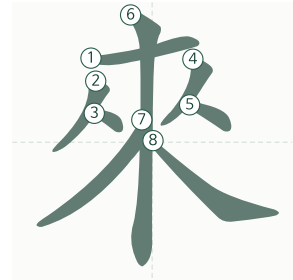
뜻·음 써 이
총 5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以/

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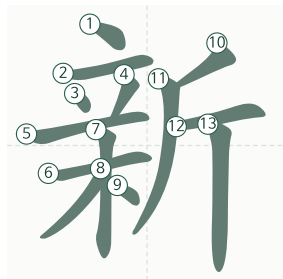
뜻·음 올 래
총 8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來/

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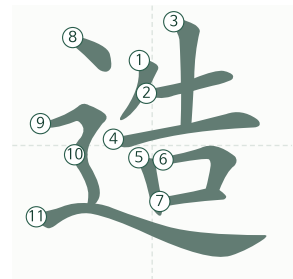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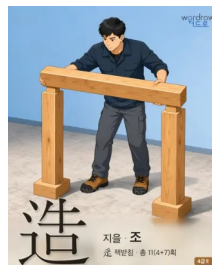
뜻·음 새 신
총 13획 · 부수 斤



hanja.wordrow.kr/한자/新/

造

뜻·음 지을 조
총 11획 · 부수 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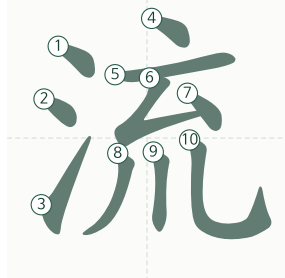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造/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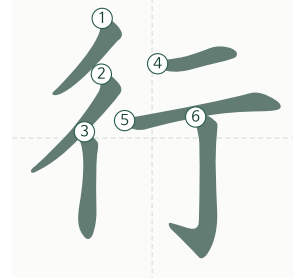
뜻·음 흐를 류
총 10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流/

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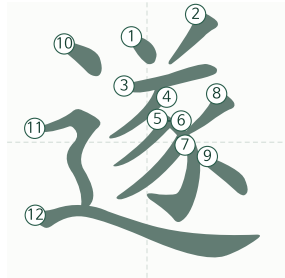
뜻·음 다닐 행 / 항렬 항
총 6획 · 부수 行



hanja.wordrow.kr/한자/行/

遂

뜻·음 드디어 수
총 13획 · 부수 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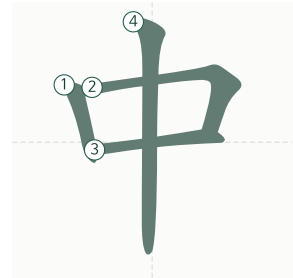


사전 13획 · 획순 그림 12획

hanja.wordrow.kr/한자/遂/

中

뜻·음 가운데 중
총 4획 · 부수 丨



hanja.wordrow.kr/한자/中/

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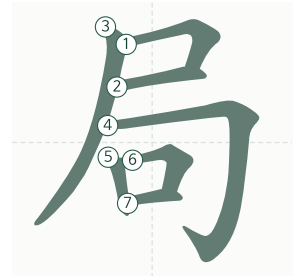
뜻·음 판목 판
총 8획 · 부수 片



hanja.wordrow.kr/한자/版/

局

뜻·음 판[形局] 국
총 7획 · 부수 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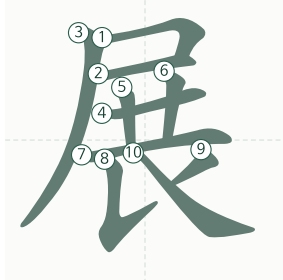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局/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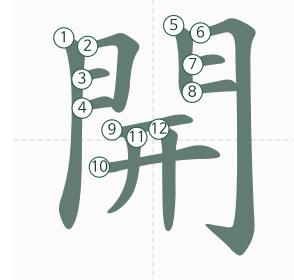
뜻·음 펼 전
총 10획 · 부수 尸



hanja.wordrow.kr/한자/展/

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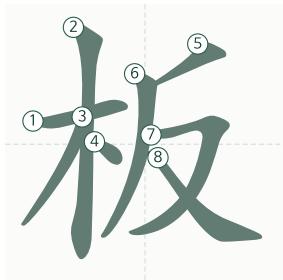
뜻·음 열 개
총 12획 · 부수 門



hanja.wordrow.kr/한자/開/

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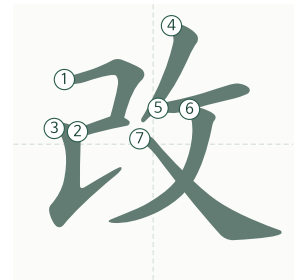
뜻·음 널 판
총 8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板/

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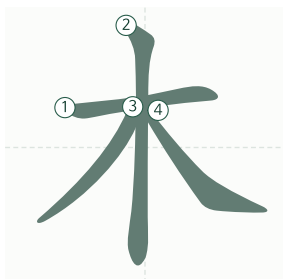
뜻·음 고칠 개
총 7획 · 부수 攴



hanja.wordrow.kr/한자/改/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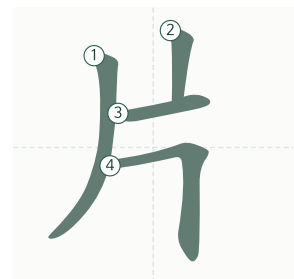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木/

片

뜻·음 조각 편
총 4획 · 부수 片



hanja.wordrow.kr/한자/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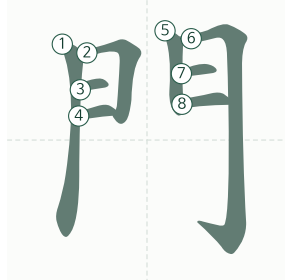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門

뜻·음 문 문

총 8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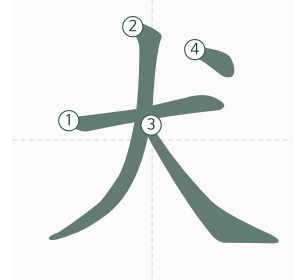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門/

犬

뜻·음 개 견

총 4획 · 부수 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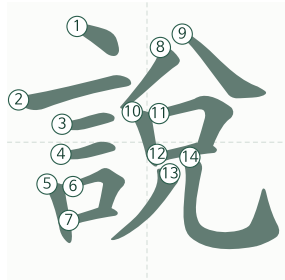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犬/

說

뜻·음 말씀 설 / 달랠 세

총 14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說/